VOL. 04
2022. Jun

청렴Letter

법무부 청렴알림e

WWW.MOJ.GO.KR | MINISTRY OF JUSTICE | NEWS LETTER

청렴은 맺고!
부패는 끊고!

Issue 1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전문 상담센터 팀장 신민섭

Issue 2

청렴 인터뷰
최고 청렴한 상사
서기관 박종균

법무부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전문
상담센터팀장
신 민 섭

주요약력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전문 상담센터팀장('16. 6.~)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청렴, 세상을 바꾸다' 강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교육전문강사

'청탁금지법 연구와 토론과정' 강사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상담사례 연구모임 운영('16. 9.~)

'당신은 정직한가요?'
'당신은 청렴한가요?'
제가 청렴 교육에서 공직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는 공직자는 거의 없습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청렴이 무엇인가요?'
그러면 어렵게 '청렴'의 사전적인 의미를 답해주십니다.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 검소하며 욕심이 없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검소하며 욕심이 없나요?'
정적이 찾아옵니다.

청렴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어려운 단어였나요?

저는 청렴이란 '어떤 지위나 일의 처리에 있어서 정해진 법과 원칙대로 공평하고 바르게 처리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미 우리 주위에는 청렴과 정직이 늘 상존합니다. 그리고 '청렴'은 어떤 위치에서만 지킬 수 있는 '수칙이나 도리'이기도 하지만 누구나 지킬 수 있는 '일상의 순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하다는 것은 곧 당연한 순서를 차례대로 이어나갈 뿐이니 고민할 필요없이 이어 가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일부 사람들은 '한 번쯤은 괜찮겠지, 남들도 이 정도는 다하는데 뭐' 하고 원칙보다 예외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한번이 사람을 바꾸고 조직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 사회는 아무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가 없었다는 건
'정말 문제가 없었다.'
'문제가 있었지만 잘 처리해서 문제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부패에 눈을 감아 문제가 없었다.'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조직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서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백한 악은 눈에 잘 띄어 잡아내기 쉽고 처벌받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도 집단적으로 묵인하고 허용하는 것입니다. 회사 예산을 개인적, 사교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부터 회사 비품을 집에 가져가서 사용하는 것, 눈에 잘 띄지 않으니까, 남들도 다 하니까. 하는 묵인하는 문화. 이러한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는 부패와 반칙이 우리 주위에 존재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부터 돌아보는 자정작용이 선행되어야 부패에 대응하는 힘이 생깁니다.

원칙은 생각보다 어렵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반칙은 때론 큰 이득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변칙은 융통성이라는 이름으로 편하고 쉬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지만 원칙이 반칙과 변칙을 이길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원칙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칙과 변칙에 능한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그리고 어떤 선배로 기억되길 바랍니까?

CONTENTS

청렴 소식
공모전 이야기
청렴 인터뷰
부패방지 및 청렴 관련 법률 소개

청렴 소식

'22년 달라지는 법무부 경조사 문화

'공무원 시보떡' 문화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시보떡 폐지 등 불합리한 관행과 조직문화 개선의 움직임이 대두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공무원 시보떡'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경·조사 문화 및 관행 타파를 위해 2021년 조직문화 개선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습니다. 제1호로 2021년 3월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약 22,451명을 대상으로 '부조리한 경·조사 관행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와 더불어 시보떡 이외의 개선이 필요한 경조사 문화에 대해서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부 내부 홈페이지를 통한 경조사 알림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2021년 10월 조직문화 개선 프로젝트 제5호로 '경조사 게시판 운영 관련 본부 직원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11월에는 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인식도를 조사하였습니다. 인식도 조사는 경조사 게시판의 이용 경험, 필요 여부, 댓글 필요 여부, 알림 대상 제한 필요성 여부, 알림 대상 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의견수렴 결과로는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공통으로 법무부 내부 홈페이지 '경조사 게시판'에 게재할 수 있는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이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설문 참여인원의 약 60% 정도가 경조사 게시판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참여인원의 약 87%가 경조사 게시판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과반수가 넘는 참여인원이 댓글 기능 유지가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참여인원의 약 58%가 경조사 게시판 알림 대상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알림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배우자 및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 설문 참여인원의 과반수가 알림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2022년부터 법무샘 경조사 게시판 및 댓글 기능은 유지하되 경조사 알림 대상은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로 한정되고, 2촌 이상(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등) 및 출산 등은 알림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법무부는 더욱 청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2021년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 알림

법무부는 올해 1월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1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45개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 2. 25. 국민권익의 날 '2021년 부패방지 부문'최우수기관으로 법무부를 선정하고 대통령 표창, 상금 1,000만원 및 신문고를 수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2021년 부패방지시책평가 '부패방지 부문' 대통령표창 수상을 기념하고, 청렴한 법무부를 이룩하겠다는 염원을 담아 '22. 3. 7. '신문고 타고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부패방지시책평가는 각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반부패 활동과 성과를 평가하여 청렴성을 높이려는 제도로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여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그 동안 매년 3~4등급의 부진한 평가를 받아왔으나, 2017년 반부패·청렴팀을 신설하고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면서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진단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우수기관으로 도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장·차관 등 고위직을 대상으로 매년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청렴의식을 고취하고 있으며 대국민 청렴콘텐츠 공모전 등을 개최하여 조직문화 개선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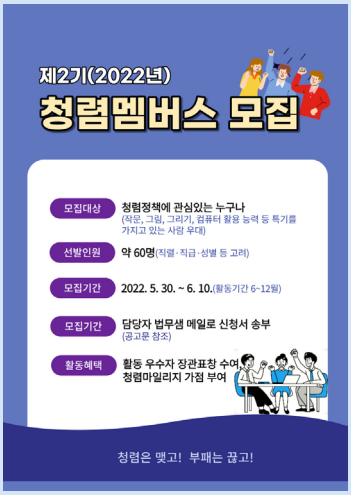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및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 발표

	청렴도평가	부패방지시책평가
평가 개요	각 공공기관의 청렴수준 진단	각 공공기관의 반부패 정책노력과 효과 평가
2021년 법무부 평가	3등급	1등급

2021년 법무부 청렴라이브 개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1회, 2시간 이상 부패방지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1년 9월 10일 과천정부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2021년 법무부 청렴라이브를 개최하였습니다. 장관님, 차관님 및 고위공무원 등 법무부 직원 1,791명이 참석하였으며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대면으로 참석, 그 이외에는 화상 및 유튜브 중계를 통해 청렴라이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청렴 워크숍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강의, 갑질 예방을 위한 감찰담당관님의 법무부 맞춤형 청렴교육 등을 주된 내용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 5월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사전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우리 부 주요 부패사례 등에 대한 청렴교육을 통해 청렴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 방역 지침이 완화되어 모든 직원이 대면하는 청렴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법무부 청렴멤버스 제2기 선발

법무부는 현장 직원들을 청렴시책 추진 구성원으로 모집하여 청렴정책의 다양성 및 현장성을 제고하고자 청렴멤버스 제2기를 선발하였습니다.

1 ·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62명*을 선발하였으며, 직렬 · 직급 · 성별 · 연령을 다양하게 구성하였습니다.

* 연수원 1명, 보호기관 17명, 교정기관 29명, 출입국기관 15명

제2기 청렴멤버스의 활동 기간은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이며, 반부패 · 청렴정책 관련 아이디어 제안, 반부패 · 청렴문화 확산 및 홍보 활동, '청렴알림e' 제작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활동이 종료된 후 청렴멤버스 대원들의 활동 내역을 평가하여 우수 활동자 2명에게 장관표창과 부상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청렴멤버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법무부 산하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

법무부는 2021년 10월 25일 '2021년 산하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산하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부문 전반의 반부패 추진 역량 동반 상승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평가하는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법무부가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평가는 산하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 총 6곳(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교정공제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청렴활동 우수 구성원 인센티브 부여','공공기관 사규 부패유발요인 개선'등 총 11개 세부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개인 인센티브 제도를 추가 도입하는 등 산하공공기관의 청렴개선 노력 유인을 강화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전체 평균 점수가 상승하였고, 3개 산하공공기관 중 매년 가장 낮은 점수로 청렴컨설팅을 받은 바 있는 정부법무공단은 이후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매년 점수가 향상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평가 결과로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교정공제회, 이민정책연구원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조직문화개선(청렴문예대전) 콘텐츠

대국민 공모전 개최

법무부는 갑질을 근절하고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2021년 국민과 함께하는 법무부 청렴문예대전'을 2021년 10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대국민 공모는 청렴이모티콘 분야 및 청렴문예(시 · 서 · 화) 분야에서 권위주의 조직문화 개선 및 청렴 등의 자유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갑질 등 권위주의 조직문화 개선 및 상호 소통 강화, 내가 바라는 조직문화의 바람직한 모습, 신고로 인한 불이익한 사례 근절 노력, 기타 청렴 관련 자유 주제 등으로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총 149점(청렴 이모티콘 22점, 청렴문예 127점)이 접수되었으며, 출품작 중 국민은 108점, 공무원은 41점이었으며 초등학생부터 중 ·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청렴문예대전에 접수된 작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위원 참여 하에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1차 심사 후 예비 당선작 40점에 대해 행정기관 대상으로 표절 및 중복수상 등에 대한 검증을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최우수작 2점, 우수작 6점, 참가상 20점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최우수작 및 우수작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상을 수여하였습니다.

지난 2월 17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우수작 시상식이 진행되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하였습니다. 청렴 이모티콘 분야 최우수상 수상자는 언어유희 이모티콘을 통해 무거운 주제인 갑질, 청렴 등의 주제를 유쾌하게 해석하여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청렴 시 · 서 · 화 분야 최우수상 수상자는 기차역 매표 창구 근무 당시 어느 승객과의 일화를 바탕으로 청렴에 대한 소신을 지켰던 경험담을 생생하게 그려내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국민과 함께 더 청렴한 법무부를 만들기 위해 더욱 더 다양한 반부패 활동을 이어 나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렴 이모티콘 분야 우수작

이모티콘 부문 • 최우수상 | 김 로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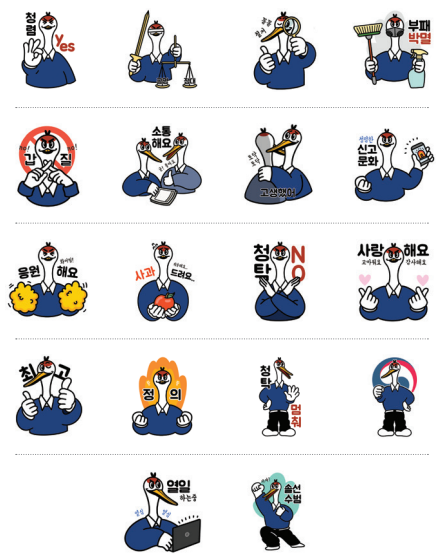
언어유희 이모티콘을 통해 전달하고픈 메시지를 기분 좋게 담아보았습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렴'에 대한 의미와 개선방향을 좀더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THE 청렴 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이모티콘 부문 • 우수상 | 전 우 정

학의 이미지를 선비에 응용하여 절개와 지조를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낡은 옷과 갓, 짚신은 검소함을 담으려고 하였습니다.

이모티콘 부문 • 우수상 | 김 민 주

학을 캐릭터의 모티브로 설정했으며, 청학淸鶴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학의 깨끗하고 맑은 하얀색 깃털은 청렴하고 소박한 생활을 상징하여 청렴을 더욱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학의 색을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배치하여 법무부의 이와도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모티콘 부문 • 우수상 | 박 윤 식

법무부에 소속되어 일하면서 '바라는 조직문화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청렴한 생활, 갑질 근절, 상호 소통, 상호 존중 등이 어우러져 내가 바라는 조직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청렴 시·서·화 분야 우수작

직업 이상의 가치와 보람을 느끼다. _박종정

2020년 초, 10년 가까이 근무한 직장을 그만두고 2019년 이직한 SR의 첫 근무지인 수서역에서 근무할 때의 일이다. 이 당시 나는 현장에서의 근무는 처음이라 낯설기도 하고 배우기에 급급했던 시기였다. 수서역 매표창구에서 근무할 때면 지금과는 달리 코로나19 감염병이 생기기 전이었고 이직한지 얼마 되지 않아 항상 긴장의 연속이었다. 이는 승차권 자체가 금전적인 부분이라 항상 조심해야 했고 자칫 승차권 발매함에 있어 오류라도 나면 고객이 열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수습하기 힘든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었다. 특히, 당시 수서역은 연일 승차권 매진이 대부분이었고, 열차이용 시간이 잦은 시간 때의 평일 승차권은 2주전, 주말은 3주전부터 예매해야 할 정도였다. 이러하다보니 매표창구를 방문하는 고객의 경우는 SRT 앱 사용이 힘들거나 승차권 변경을 위해 오는 분들이 많았고 잔여석 구하기란 하늘에 별따기 수준이었다. 또한, 수서역을 방문하는 고객의 다수는 몸이 불편하여 진료나 수술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분들이 많았기에 병원 이용 후 내려가는 분들이 많았다. 이분들은 이미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였고 수서역에 하염없이 있을 수만은 없었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창구에 방문하곤 했다. 나는 이러한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었다. 하지만 승차권 예매를 위해 기다리는 대기줄의 끝이 보이지 않았고 한분한분 승차권을 구해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지만 매진이라고 밖에 설명드릴 방법이 없었고 일부 고객은 나의 설명이 마음에 안들었는지 아니면 승차권을 구매하지 못한 자신에게 화가 난건지 모르겠으나 괜히 나에게 화풀이하기도 했다.

나도 사람인지라 기분이 좋지는 않았다. 하지만 고객분들의 마음을 알기에 항상 웃으면서 맞이했다. 그러던 중에 일이었다. 대기줄을 연거푸 기다리며 두 번의 재방문을 한 어르신이 "총각 미안하지만 다른 사람도 표를 구해야하는 심정은 나와 같을 테지만 내가 몸이 좀 안좋아 오래 서있기가 힘이 들어 그러니 꼭 좀 표를 구해 봐주면 안되겠나?"하는 것이었다.

다수의 고객은 뒤에 기다리는 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직원을 끝까지 붙들고 버티는 것이 많았는데 비해 이 어르신은 뭔가 달라보였다. 하지만 어르신만 특혜를 주며 장시간 잔여석을 봐드릴 수는 없었기에 몸 상태를 여쭙고 현 상황을 설명드리며 잔여석 조회를 반복하던 도중 취소표가 나왔고 나는 재빨리 해당 표를 잡게 되었다. "어르신! 취소표 잡았어요!"라며,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러버렸다. 어르신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진 것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고객은 동등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어르신의 힘듦을 느껴 좀 더 신중 했던 탓이었을까 아무튼 복잡 미묘했지만 일단 표를 잡았단 사실에 기쁨을 표출했던 것 같았다. 곧바로 어르신은 승차권을 결제하기 이르렀고 연신 나에게 고맙다고 말하시며 되돌아가는 듯 했다. 물론 이 광경을 뒤에 기다리던 고객분들이 지켜보고 있었기에 나는 더욱 취소된 승차권을 구하기 위해 집중해야만 했었다. 그렇게 매표업무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승차권을 구매해 가신 그 어르신이 다시 대기줄에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내가 승차권을 잘못 발권해 드렸나?'하며 또다시 긴장하고 있었다. 어르신과 나의 세 번째 만남이었고 어색함이 유지되던 찰나 갑자기 두 손 가득 들고 계시던 빵을 주시는 것이었다. 빵을 든 손을 내밀며 나에게 "우리 선생님 덕분에 내가 집에 잘 갈수 있게 되었어. 너무 고마워. 약소하지만 직원들과 함께 이 빵을 나눠 먹었으면 해서 이렇게 사왔지 뭐야."라며 말씀하시곤 내가 얼른 받기를 바라는 눈총을 주었다. 하지만 나는 받을 수 없었다. 당연히 역무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고 예매 취소가 때마침 나온 것이지 나는 조금 더 확인해 드린 것 밖에 없었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반복하던 그때 뒤에서 기다리던 다른 고객분들이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손주뻘 되는 것 같은데 받아 줘. 어르신이 얼마나 고마웠으면 빵을 사오겠나."라며 받아 주길 바라던 것이었다. 보통은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것에 짜증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국 어르신의 호의를 거절해야만 했다. 나의 웃음 뒤 단호함을 읽었던 것일까 "어르신 빵은 괜찮으니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드시면서 조심히 가세요."라는 나의 말을 듣고 이내 자리를 옮겼다. 아마도 뒤에 기다리는 다른 고객들이 미안해서 포기하신 것 같았다. 때마침 다른 역무원과 매표창구 교대시간이 다가왔고 교대를 마친 후 얼마 못간 어르신을 이내 찾아 갔다.

어르신을 만나 뵙고 나는 이렇게 말했다. "어르신, 어르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되고 감사한 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빵을 받게 되면 지금 당장은 저도 기분이 좋겠지만 앞으로 다른 고객들에게도 물질적인 것을 바라고 업무에 임하게 될 것 같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어르신이 보여주신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로도 충분히 직원에게 마음을 전달 할 수 있으니 앞으로도 감사하다는 말 전해주세요."

이 말을 들은 어르신은 두 손에 든 빵을 내려두시고는 나의 손을 붙잡고 고맙다고 연신 고개를 숙이시며, "우리 총각만 봐도 회사를 잘 알겠다며, SRT 좋은 회사네."라고 말씀하시며 이내 발길을 옮기셨다. 나는 어르신을 보내며 문득 생각에 잠겼다. '내가 만약 빵을 받았더라면 지금 느끼는 이 여운이 오랫동안 이어져 갈까?'하며 말이다.

나는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그 때의 일을 회상하며 다시 한번 느낀다.

'내가 그때 당시 빵을 받았더라면 지금 이 글을 쓸 수 있었을까?'

서기관
박종균

‘최고 청렴한 상사’

부패위험성진단 평가 3년 연속 기관장 청렴도 만점 획득,

박종균 서기관님 일문일답 인터뷰

법무부는 매년 내부청렴도 취약분야 및 소속기관장의 청렴 수준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마련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해 부패위험성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속기관 기관장 및 부서장을 진단 대상으로 상급자 · 동료 · 하급자 평가를 실시하여 개인별 청렴도를 평가 · 비교하고 있으며 직무수행의 공정성, 균형적인 조직관리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 기관별 맞춤형 설문 등을 포함한 총 17개 문항으로 진단이 이루어집니다.

3년 연속 기관장 청렴도 만점, 4년 연속 청렴도 진단 1위, 가장 청렴한 상사 등을 획득하신 전 대구보호관찰소 구미지소장 박종균 서기관님을 직접 만나 청렴에 대해 일문일답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Q 서기관님께서는 4년 연속 청렴도 진단 1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연속 기관장 청렴도 만점, 직원들이 뽑은 가장 청렴한 상사로 선정되셨습니다. 이에 대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근무하면서 훌륭한 선배님과 동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현직에 계신 분도 있고요. 제가 감명받았던 점들을 비슷하게나마 따라해 보려는 시도들이 조금 인정받은 것 같아서 기쁩니다. 그렇지만 이들 선배님과 동료들 보기에 부끄럽습니다.

Q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적 업무처리’, ‘갈등 해소, 불만 해결을 위해 부하직원에게 관심을 가져 줌’을 이유로 ‘가장 청렴한 상사’에 선정되셨는데 평소 이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것들이 있을까요? (일화 등)

A 제가 인상 깊게 배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직원들은 부서장에 대해서 ‘먼저 사람을 받아들인 후에 그 사람의 비전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업무나 관계 면에서 제가 상대에게 동료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가를 자주 생각해 봅니다. 업무상의 결정이든 갈등 · 불만이든, 가능하면 상대방의 눈으로 사안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항상 어렵게 생각됩니다.

Q 부서장 이상 관리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청렴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부서장은 일을 직접 처리하기보다는 부서원들을 통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서원이 1차 고객인 셈이지요. 제 생각에 부서장은 동료 직원이 잘한 점, 노력한 점을 진심으로 알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고마워하면 그것을 동료들이 느끼거든요. 그러면 서로 믿고 힘을 합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소통보다도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Q 관리자로서 청렴을 지키기 어려웠던 상황은 없으셨나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어려움을 극복하신 일화가 있으면 얘기 부탁드립니다)

A 일선에서 일하다 보면 우리 부 전체의 청렴도 향상 노력이 차츰 민간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한 기관에서 근무할 때 방문하신 손님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청사 앞 가게에 들러 박카스 한 통을 주문했더니, 주인이 어디 가느냐고 물어본 다음 사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가끔 그 기관에 방문하려는 사람이 음료수를 사지만, 매번 직원에게 거절당하고 환불해 간다는 거였지요. 이제는 업무상의 청탁을 받는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가끔은 지역사회의 단체 · 개인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청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시적인 부탁이면 딱 잘라서 거절하면 되는데, 부당한 처리를 바라는 것이 아니니 자기 체면만 세워달라고 둘러서 말하거든요. 한 가지 방법은 어떤 내용이든 실무자에게 일절 전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달하고 나서 ‘그래도 공평히 처리해 달라’고 하면 그것이 상급자의 압력으로 오해될 수 있거든요.

Q 앞으로 우리 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어떤 감사담당관실에서 특별히 추진해야 할 청렴 정책들이 있다면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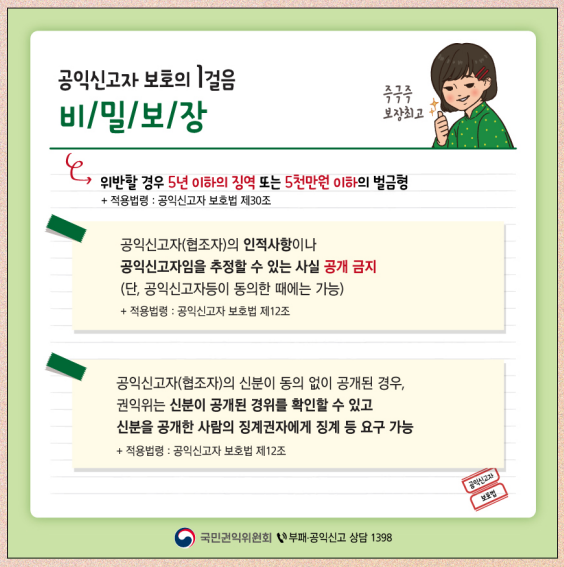
A 근래에 부각되는 주요 이슈는 아무래도 갑질에 관한 상하 인식 차이인 것 같습니다. 특히 상급자가 ‘나는 스스로 떳떳하니 조금 오해받아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식 개선과 함께 상하 간에 서로 조심하는 계기를 감사담당관실에서 꾸준히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질로부터 자유로운 문화 속에서는 다른 비위 행위도 점점 더 어려워질 테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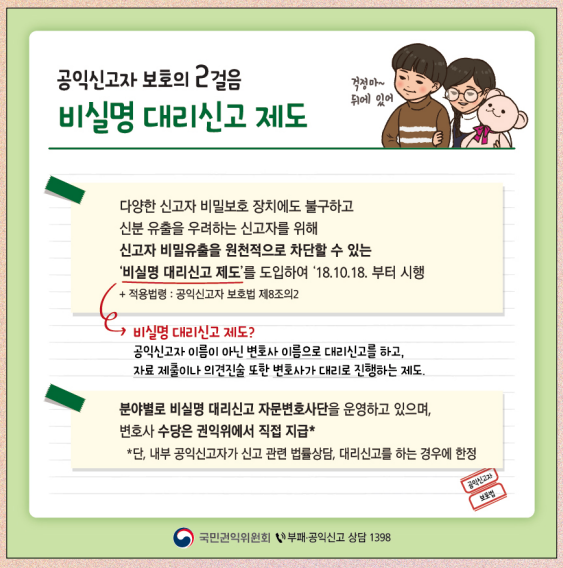
Q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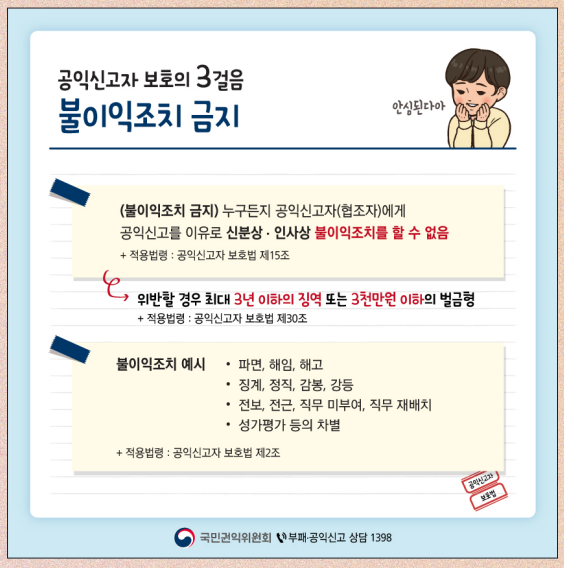
A 이번 기회에 저의 평소 언행이나 업무 추진에 대해서 다시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좋게 평가해서 격려해 주신 동료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국민권익위원회
쉿!
권익위는
입이 참 무거워요
- 공익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
뭐라고?
안돌려~
아.무.말.도.안.했.어
알려고하지마~ 다쳐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의 1걸음
비/밀/보/장
쥐구멍 보장최고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공익신고자(협조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단,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가능)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공익신고자(협조자)의 신분이 동의 없이 공개된 경우,
권익위는 신분이 공개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고
신분을 공개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징계 등 요구 가능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상담 13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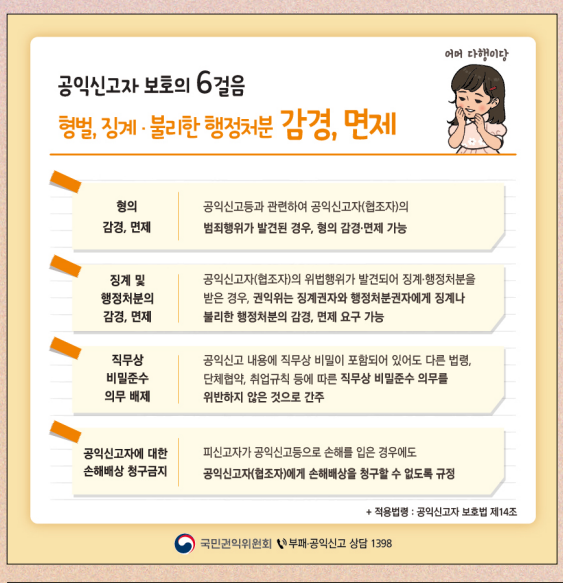

공익신고자 보호의 2걸음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걱정마~ 뒤에 있어
다양한 신고자 비밀보호 장치에도 불구하고
신분 유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를 위해
신고자 비밀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18.10.18. 부터 시행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공익신고자 이름이 아닌 변호사 이름으로 대리신고를 하고,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 또한 변호사가 대리로 진행하는 제도.
분야별로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변호사 수당은 권익위에서 직접 지급*
*단,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관련 법률상담, 대리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상담 13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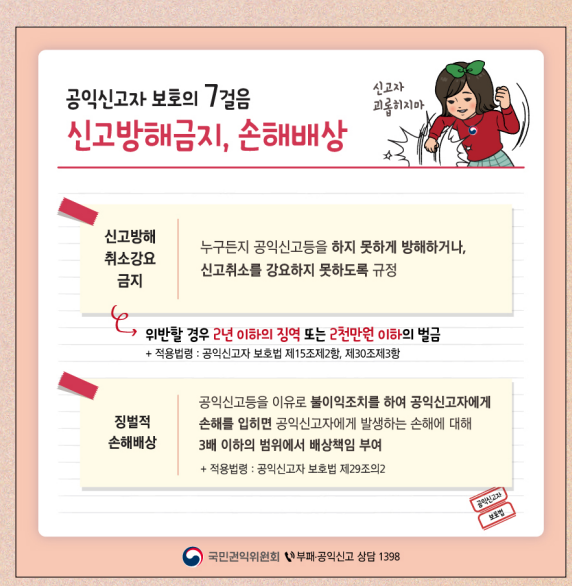

공익신고자 보호의 3걸음
불이익조치 금지
안심된다야
(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협조자)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 인사상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음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불이익조치 예시
• 파면, 해임, 해고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 성가평가 등의 차별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상담 1398

공익신고자 보호의 4걸음
보호조치결정
내가 지킨다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은 권익위로 접수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2조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보호조치 신청
불이익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제20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요구 등 보호조치결정
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 시 매년 2회 범위에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이행 시 까지)
또한,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 제30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상담 1398

공익신고자 보호의 5걸음
신변 보호
같이 보호받자
신변 보호요청
권익위에 신변보호 요구
국민권익위원회
신변보호 접수 후 관할 경찰서에 조치 요청
신변보호 조치
신변 보호방법
일정기간 동안 특정시설에서 보호
참고인 또는 증인 출석 · 귀가시 동행
일정기간 동안 신변경호
대상자 주거 주기적 순찰 등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공익신고자(협조자) 뿐 아니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도 보호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상담 13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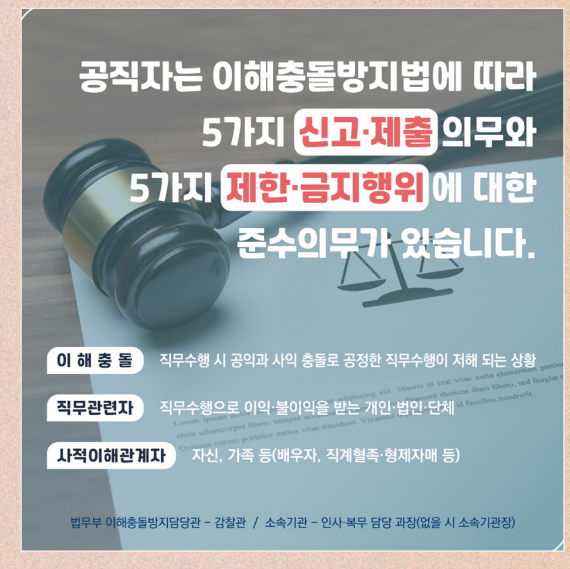
부패방지 및 청렴 관련 법률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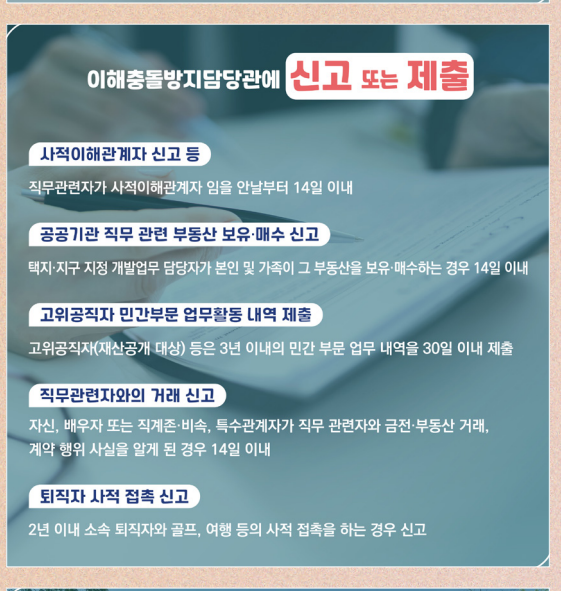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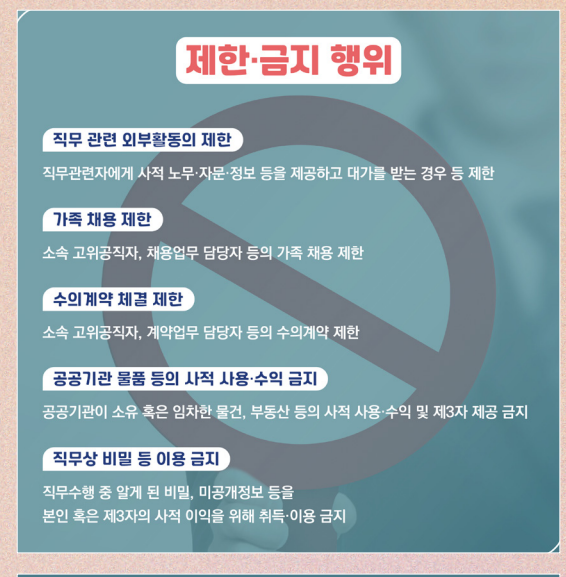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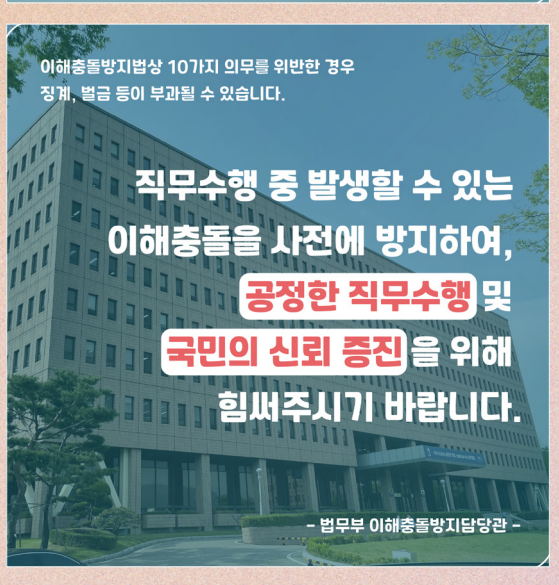
이해충돌방지법 소개

법무부
2022년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행위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이 해 충 돌
직무수행 시 공익과 사익 충돌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 되는 상황
직무관련자
직무수행으로 이익·불이익을 받는 개인·법인·단체
사적이해관계자
자신, 가족 등(배우자, 직계혈족·형제자매 등)
법무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 감찰관 / 소속기관 - 인사·복무 담당 과장(없을 시 소속기관장)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 신고 또는 제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 임을 안날부터 14일 이내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택지·지구 지정 개발업무 담당자가 본인 및 가족이 그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14일 이내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고위공직자(재산공개 대상) 등은 3년 이내의 민간 부문 업무 내역을 30일 이내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특수관계자가 직무 관련자와 금전·부동산 거래,
계약 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14일 이내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2년 이내 소속 퇴직자와 골프, 여행 등의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신고


제한·금지 행위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직무관련자에게 사적 노무·자문·정보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등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소속 고위공직자, 채용업무 담당자 등의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소속 고위공직자, 계약업무 담당자 등의 수의계약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공공기관이 소유 혹은 임차한 물건, 부동산 등의 사적 사용·수익 및 제3자 제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미공개정보 등을
본인 혹은 제3자의 사적 이익을 위해 취득·이용 금지


이해충돌방지법상 10가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및
국민의 신뢰 증진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

이해충돌방지법 준수사항
실천을 통한
더 청렴한 법무부

청렴알림e 3호

구독인증 이벤트('21.10.) 우수 구독평

청렴알림e에서 청렴실천의 지혜를 건져올립니다.

김원희님
대전보호관찰소 보호주사보

부패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청렴한 세상이 오길 두손 모아 기원합니다.

김성철님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주사

법무부 모든 직원이 청렴한 공직자가 되는 그날까지 청렴알림e의 지대한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김태균님
부산보호관찰소 보호사무관

따로 또 같이! 청렴은 나부터! 공직자로서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청렴!

김현숙님
수원보호관찰소 보호사무관

국민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공직자로서의 정당함을 잃지 않고, 항상 기본으로부터 출발함이 청렴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법무부 청렴e가 그 역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성준님
대전보호관찰소 서기관

저는 청렴이 궁금할 때, 청렴알림e를 읽습니다. 변함없이 법무부 '청렴메신저'로 남아주세요

신달수님
의정부보호관찰소 보호사무관

'청렴알림e'가 법무부를 뛰어넘어 타 부처에서도 모범이 될 만한 뉴스레터로 거듭나길 기원해 봅니다.

최형우님
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주사

청렴, 공직문화 개선 1번지

최만호님
청주교도소 교감

뚜렷하게 눈에 띄는 성과가 밖으로 표출되기 어려운일에도 열심히 알찬 구성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구철민님
춘천교도소 교위

'법무부 청렴알림e'가 법무부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고양시키는데 길잡이 역할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박한구님
여주교도소 교정관

더욱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무부 청렴알림e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태인님
포항교도소 교위

같이하는 청렴으로 가치가 높은 공직사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치견님
서울남부구치소 교감

청렴은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우리의 자부심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힘써 주세요.

이상배님
출입국기획과 출입국관리사무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로 정부 제일의 청렴소식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박기형님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관리주사보

법무부가 청렴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등대역할을 해주세요!

유시열님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항만출장소 출입국관리주사

알찬 내용에 읽고 교훈을 얻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꾸준히 지금처럼!

김예원님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관리서기보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기고문 또는 코너 신설 등 '법무부 청렴알림e'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시는 곳 : 이메일(shinvely@korea.kr), 우편(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문의처 :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뉴스레터 담당자(02-2110-3275)

#청렴알림e #응원_메시지 #BEST_OF_BEST #